

# “전력망 핵심산업 키운다” 나주시,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 차세대 전력망 핵심 품목 중심 산업 집적화 추진 정부 공모 대응 전략 구체화... 특화단지 지정 총력 전력 변환, 디지털 전력망 등 5대 품목 집중 육성

전남 나주시가 차세대 전력망 구축 핵심 분야인 전력기자재 산업을 중심으로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 조성에 나서며 에너지 산업 기반을 활용한 제조 중심 산업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나주시는 전력기자재 분야를 중심으로 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정부 공모 대응을 위한 전략 구체화에 나섰다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차세대 전력망 첨단기자재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타당성 연구 용역’에 착수한 이후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전문가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병행하며 사업 구체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2월 정부와 관계기관이 참여한 사

업설명회에 참석해 공모 방향과 평가 기준을 확인했으며 3월 초 관계 부처 예비검토를 통해 전력기자재 중심 특화 전략의 정책 적합성과 적정성을 점검받고 보완 의견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지난 18일 기획위원회 개최와 19일 부시장 주재 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전략 점검과 실행력 확보에도 나섰다.

기획위원회에서는 전력기자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력 변환장비, 배전망 핵심 부품, 디지털 전력망 장비, 전력 계측 부품 및 장비, 테스트베드 등 5대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특화 전략을 재정립하고 핵심 품목별 기술과 제품 도출, 지역 기업



연계 강화, 에너지 기업 분석을 통한 제조 중심 앵커기업 발굴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나주시는 향후 기획위원회와 예비검토 결과를 반영해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정부 공모에 적극 대응해 특화단지 지정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특화단지가 조성될 경우 지역 전력기자재 기업들은 연구개발부터 실증, 사업화까지 전주기 지원과 함께 국비 지원과 세제 혜택, 규제 특례 등 다양한 정책적 인센티

브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에너지 공기업과 연구기관, 대학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기술 개발과 인력 확보가 용이해져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전력기자재는 차세대 전력망 구현의 핵심 분야로 나주는 에너지 산업 기반과 기업 집적 여건을 갖춘 최적지”라며 “정부 정책과 연계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특화단지 지정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이명열 기자

### 청산 해양치유공원에서 봄날의 힐링! 이벤트도 팡팡! 청산 해양치유공원 반값 할인, SNS 인증 등 이벤트 진행

완도군이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를 맞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 ‘해양치유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우리나라 대표 슬로시티 청산도와 완도만의 차별화된 해양치유 자원을 연계하여 관광객들에게 관광뿐만 아니라 심과 회복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첫 번째 이벤트는 ‘청산 해양치유공원 이용료 반값’이다.

완도군 관내 식당, 숙박업소 등에서 5만 원 이상 사용한 영수증을 제시하면 청산 해양치유공원의 모든 프로그램을 50% 할인(본인 포함 3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청산 해양치유공원에서는 허브 맥반석, 향기·해조류, 소리, 해수 미스트, 푸드 치유관과 스마트 건강 진단실을 운영 중이며, 이벤트 기간 효율적인 휴식을 위해 ‘내 몸 맞춤 심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내 몸 맞춤 심표’는 방문객이 원하는 치유관을 선택하여 체험할 수 있어 맞춤형 힐링이 가능하다.

지역 상권 이용을 유도하고 관광객의 여행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이벤트 ‘완도 찍고, 청산 찍고’도 눈길을 끈다.



완도해양치유센터와 청산 해양치유공원 두 곳을 모두 이용한 후 개인 SNS에 인증 사진과 필수 해시 태그(#청산해양치유공원 #완도해양치유센터 #해양치유)를 달면 선착순으로 소정의 선물을 증정한다.

군은 축제와 해양치유를 연계한 마케팅을 통해 청산 해양치유공원과 완도 해양치유센터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완도 전역을 하나의 치유 거점으로 브랜드화 한다는 방침이다.

청산 해양치유공원 이용 및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치유담당관 해양치유마케팅팀(☎061-550-5684)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유쾌할 만발한 아름다운 청산도의 슬로길을 걷고 해양치유를 통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란다”면서 “축제와 치유가 어우러진 완도만의 웰니스 콘텐츠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봄날의 휴식을 선사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장선우 기자

보성군은 제16회 결핵 예방의 날(3월 24일)을 맞아 결핵 조기 발견과 예방 인식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결핵 검진 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27일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예방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결핵 발생 비중이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의 조기 검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해 무료 흉부 엑스선 검사와 객담검사

## 보성군, 찾아가는 결핵 검진으로 어르신 건강 지킨다!

### 어르신 1,085명 대상... 무료 검사으로 연계로 조기 발견·확산 차단

를 실시하고, 의심 환자 발견 시 즉시 의료기관으로 연계해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2025년 경로당 64개소와 노인복지시설 12개소 등 총 76개소를 대상으로 1,364명을 검진했으며, 이 가운데 2명의 결핵 환자를 조기에 발견했다. 이는 지역사회 내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

단한 사례로 평가된다.

올해는 총 1,085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 검진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층은 면역력이 낮아 결핵 발병 위험률이 높으며, 증상이 없더라도 연 1회 정기검진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27일에는 전통시장 및 다중이용시설 일원에서 결핵 예방 캠페인을

추진해 ▲2주 이상 기침 시 결핵 검진 권고, ▲기침 예절 준수, ▲65세 이상 연 1회 무료 검진, ▲정기검진의 중요성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결핵은 조기 발견과 꾸준한 치료를 통해 완치가 가능한 질병으로, 특히 어르신들은 매년 1회 정기검진을 반드시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검진과 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 결핵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성/김운기 기자

영광군은 농업 발전을 선도할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해 ‘2026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을 오는 3월 23일부터 4월 15일까지 신청·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로, 2021년 및 그 이전에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 해당된다. 선발 인원은 전국 500명을 선정하며,

## 영광군,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 안내

9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시·도별 배정 없이 전국 경쟁을 통해 최종 선발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영농 규모 확대와 경영 개선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를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금

리는 연 15% 고정, 상환 조건은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이다.

지원 자금은 농지 구입 및 임차, 하우스·축사 등 시설 설치, 농기계 및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 등 영농 기반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전신용조사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영광군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정재욱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역량 있는 후계농업경영인이 한 단계 더 성장해 지역농업을 이끌 핵심 인력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광/이현식 기자

영암군이 왕인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도기박물관 합인 행사를 운영하며 영암도기의 전통과 가치를 알린다고 밝혔다.

군은 4월 4일부터 12일까지 영암도기 박물관에서 도기 제품을 30% 할인 판매하고, 운영시간을 기존 오후 6시에서 오후 9시까지 연장한다. 다만 야간 운영 시간에는 판매장은 운영하지 않는다. 휴관일에

## 영암군, 왕인문화축제 기간 도기 30% 할인

### 시유도기 발상지 영암, 전통 도기 체험 기회 제공

도 정상 운영해 축제 방문객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왕인문화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영암 도기의 전통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판

매 제품은 박물관 공방에서 제작된 도기로, 전통 장작가마와 현대 가마 기법이 어우러진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영암은 우리나라 최초 시유도기

의 발상지로 알려진 곳으로, 구립도기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도기 문화를 이어오고 있다. 감철 영암군 문화예술과장은 “왕인문화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영암도기의 역사와 가치를 함께 경험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머무는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 순천시, 22개 의료기관과 퇴원환자 통합돌봄 연계 협약 맺어 의료기관과의 협력으로 퇴원환자 맞춤형 돌봄 시대 연다

순천시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총합한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22개소 의료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병원에서 퇴원하는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퇴원환자에 대한 조기 발굴과 신속한 돌봄 연계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병원장,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통합돌봄 사업의 필요성과 협력 방향을 공유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돌봄 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의료기관은 퇴원환

자 중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순천시에 연계하고, 순천시는 대상자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 재입원을 예방해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의료기관과 행정의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퇴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해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은 통합돌봄 체계를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라며 “협약으로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의미 있는 결실을 맺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순천/정성인 기자

